

#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8사 참여

## 금융·투자기관 8곳 서명 ... 자산 운용규모 총 3515억달러 달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본사와 한국위원회는 한국의 금융·투자 기관 8곳이 최근 서명을 통해 <2008년 탄소공개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2월5일 발표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투자기관의 서명을 받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의 본사와 국가별 위원회가 투자기관을 대신해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경영전략을 수집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주지시키는 활동을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2003년부터 매년 시행돼 2008년 6번째를 맞고 있는데, 한국은 2008년 전년대비 2배인 8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2008년 참여기관은 신한은행, 대구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NH-CA자산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템피스 투자자문 등으로 한국위원회는 참여기관의 자산 운용규모가 총 3513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는 현재 홍콩상하이은행(HSBC), 브라질은행, 메릴린치 등 385개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자산운용 규모는 57조달러에 달한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의 본사와 각 국가별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서명을 기반으로 최근 한국 5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을 포함한 전세계 3000여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묻는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10월경 국가별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05>